日, 대두박 계속 수입

<일본>

일본에서는 식용유메이커의 착유량감소로 12월배합사료용 대두박이 부족될 것으로 보고 종합무역상사를 통해 계속 대두박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10월 三菱상사가 브라질산 약 1만5천톤을 수입하기로 되었다.

兼松江商이 수입하는 대두박은 미국산 4천톤, 브라질산, 1천5백톤이라고 하며 지난달초에 전량이 입하되었다고 한다.

가격은 37.5kg들이 1부대에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2천5백円정도로 자국내생산 대두박보다 8%가 싸게 먹힌다고 한다.

부로일러의 계란생산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Avicola Aglietto 회사와 Turin 대학교의 공동연구진은 부로일러의 산란성에 대한 연구결과 종래의 산란계에 비하여 크게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

공동연구팀에 의하면 부로일러는 약간큰알을 낳는 동시에 산란계보다 많은 먹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25주령에서 40주령사이에 있는 크고 부로일러의 순수한 4개의 혈통(두개의 혈통은 ○ 나머지 두개는 ♀)에 속해있는 12,070수수 원종계의 산란율과 난중을 매일매일 검사한 결과 우수하다고 발표했다.

40주령 때의 몸무게는 산란율과 난중에 영향을 친다고 보고 되었으며 암탉의 몸무게가 2.8~.3kg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농산물수출 급증추세

<미국>

지난7월1일부터 시작된 75~76회계년도의 최초 4개월동안 미국농산물 수출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접근하고있다.

농산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의 62억달러보다 증 10%증가한 68억달러 였다.

이와같은 증가는 소맥, 사료용곡물, 대두, 면화 수출이 기록적인 수준에 달한것으로 기인되는데 쌀과 깻묵, 식물성기름, 잎담배수출은 양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중에서 소맥수출은 9백60만톤(16억달러)에서 1천2백60만톤(2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옥수수 수출의 증가율은 소맥과 유사한 증가를 보여 9백30만톤에 12억달러상당이 수출되었다.

이기간중 대소수출은 4억4천2백만달러로 이중에는 2백30만톤의 소맥과 59만6천톤의 옥수수가 포함되어있다.

산란계의 제한급여

<미국>

닭의 사료섭취량을 줄이면 닭의 산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연구가 세계 도처에서 상당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일단의 연구위원회는 일반적인 산란업자의 생각과는 상이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하루 중 섭취량의 8%를 줄이면 산란율에 어떤영향을 미칠 것 인가? 발표결과에 의하면 사료의 제한 급여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실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부 Dkota State 대학에서는 24주령 산란계에서 산란율이 6%떨어진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방법이 40주령까지 계속되면 생각보다 높은 산란율이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닭은 최고산란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높은 산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들은 보고 했다.

곡물 수입선을 전환

<베네수엘라>

海外情報

베네수엘라는 곡물수입을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전환하고 있다고 미국농무성이 밝혔다.

농무성의 해외농업지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협정에 따라 소맥 20만톤, 옥수수 10만톤, 수수 10만톤등 40만톤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아르헨티나에서의 곡물수입은 미국의 곡물구매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농무성은 6월말로 끝난 지난 1년동안 베네수엘라가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소맥 63만 2천톤, 수수 57만3천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일, 우육 1만톤 도입

<일본>

일본농림성은 지난 10월22일 연말의 성수기에 우육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1만톤의 우육 수입을 할당했다.

이는 상승을 계속하고있는 시세가 연말연시에도 높은수준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일본은 지난 8월말에 2만톤에 이은 추가할당이다.

그리고 일본농림성은 12월 상순에도 1만톤을 더 할당하기로 했다.

국제 양모시장 회복단계

<서독>

지난 7월말에 서독의 푸랑크프르트에서 76~77년 추동복지 인터스터프견본시가 열렸다. IWS(국제양모사무국)에 의하면 서독을 중심으로 내년 선물거래에 있어 순모의 부활에 큰기대를 걸고 있는데 세계적인 불황과 소비감퇴속에서 세계 양모공업계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소비지출의 회복이 시작될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양모공업계가 회복단계에 있는 이유로서 원모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64번수의 울과 3데니의 폴리에스터·토우의 가격차는 1973년 전반의 반으로 줄었고 양모의 가격경쟁율이 늘어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계획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여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만이 계란생산이 국내 총수요량의 37%를 생산하고 닭고기는 22.5%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나머지 중동 여러나라는 공산유럽국이나 EEC 제국에서 비싼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정부에서는 농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농업계획에 4천억 R(사우디아라비아의 화폐단위 riyals)을 농업에 투자함으로서 정부관리들은 이 투자액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가금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이러한 많은 투자액은 대부금이나 국가보조금의 방법으로 부화장, 도계장, 사료공장, 계사와 동물약품공장, 그리고 기술학교도 세울 계획으로 지금까지 값비싼 외국산 계란이나 육류를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정부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칠면조

<영국>

영국요크셔 지방의 Knayton농장에서는 칠면조 사양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최근외신보도는 전하고 있다.

흰 장미라고 불리우는 이 흰 칠면조혈통은 지난 2년동안 그들 자체의 농장에서 최소한 15만수 이상 길렀다.

이들은 보통의 사료로 숫칠면조와 암칠면조들의 사료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숫칠면조의 사료효율은 12주일째 1 : 2.0이고 24주일째는 1 : 2.89에 달하고 있으며 암칠면조는 12주일째 1 : 2.05, 16주에는 2.47에 달했다. 그리고 숫 칠면조들은 20주령에 10.58kg에 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있다. 또 도체율 82.3%에 달하여 9.27kg에 이르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